

『醫林撮要-三消門』의 의학적 성취

조선영*, 차웅석**, 김남일**, 유원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경희대학교 사학과***

Abstract

Following former study(A Study of the Perception of SoGal in the early through mid Chosun Dynasty- Focusing on 『UiBangYuChi(醫方類聚)』 and 『DongUiBoGam(東醫寶鑑)』), there were medical attainments in this study on SoGal(消渴) of 『UiRimChualYo(醫林撮要) · SamSoMun(三消門)』.

1. SoGal(消渴) theory of 『UiRimChualYo(醫林撮要) · SamSoMun(三消門)』 presented the lack of Bodily Liquids and Blood theory(津液·血不足論) overcoming the limits of the fire/heat theory(火熱論).

2. In the 『UiRimChualYo(醫林撮要) · SamSoMun(三消門)』, the concept of SoGal was started to change simple symptoms into the diseases including ethology, pathology and prognosis etc.

3. In the 『UiRimChualYo(醫林撮要) · SamSoMun(三消門)』, the prescriptions of JaEum(滋陰) were thought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prescriptions of HuaYul(火熱) were excluded at all.

4. The use of warm herb like BuJa(附子) was showed through GaGamSinGiHwan(加減腎氣丸) and succeeded in 『DongUiBoGam』 the kidney's fire(坎火衰少論) lack theory.

The futuristic percetion of 『UiRimChualYo(醫林撮要) · SamSoMun(三消門)』 influenced 『DongUiBoGam(東醫寶鑑)』 was able to have progress ideas about SoGal.

Key word :SoGal(消渴), RimChualYo(醫林撮要), dabetes

서론

최근 당뇨병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서양에 비해 단기간에 당뇨병이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당뇨병 증가율이 1.5배인데 반해, 한국의 당뇨병 증가율이 5.1배였다고 한다. 결국,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이환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한다.¹⁾ 이러한 역학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가 없으나 어찌되었든 한국인의 당뇨병 조절은 현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당뇨병을 이겨내는 방법을 전통의학에서 찾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消渴의 어떠한 점들이 당뇨병과 같은지를 보여주는 연구²⁾가 있었으며, 당뇨병을 전통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³⁾ 그러나, 전통의학이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임상결과인 것을 감안하여 消渴이 어떤 의미를 갖는 증상과 질환인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고, 또한 의론과 처방상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왔는지 보여주는 연구가 부재하였다. 그 결과는 소갈치법과 지방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당뇨병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자칫 처방의 혼동과 약물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지난 연구⁴⁾를 통해 『醫方類聚』를 펴낸 의학자들은 消渴을 여러 종류의 원인에서 비롯된 갈증으로 인식하였으나, 『東醫寶鑑』을 펴낸 의학자들은 消渴에 대해 특정 병기를 지닌 질병으로 인식하였음을 밝혔다. 즉, 『東醫寶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의 갈증 가운데, 津液과 血이 소모되어 나타나는 갈증만을 消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다 악화되어 陽氣의 손상에 이른 중증의 消渴까지도 언급했다. 消渴을 병정의 깊이에 따라 三消로 명확하게 분류하였으며 傳變證, 不治證까지 소갈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로써, 『醫方類聚』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임상적 경험과 논쟁이 축적되면서, 『東醫寶鑑』이 완성된 조선중기에 이르러 消渴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국민일보 2006. 11. 10

2) 張泰洙 외 2인, 症狀을 中心으로 본 消渴과 糖尿病의 關係, 韓方內科學會誌 3월호 2권 1호, 1985.

3) 김병우, 消渴症 處方인 天花散, 八仙長壽丸 및 玉泉丸이 생쥐 血糖量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외

4)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이전 연구가 『醫方類聚』와 『東醫寶鑑』의 消渴에 대해 病因病機, 분류, 범주, 그리고 이에 따른 八味丸의 응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았다면, 본 논문에서는 조선 中期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의서인 『醫林撮要』의 消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醫林撮要』는 『東醫寶鑑』과 함께 한국 한의학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선 중기의 대표 의서이다. 『醫林撮要』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간행되기도 했지만, 消渴을 다루고 있는 卷之六을 포함하는 8卷本은 宣祖 22년(1589년)과 선조 25년(159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醫林撮要』는 金元四大家의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학을 선보이고, 『東醫寶鑑』을 비롯한 이후 여러 의서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⁵⁾ 따라서, 『醫林撮要』에서 消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에 이어 消渴의 병인병기, 분류, 범주, 치법과 처방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 결과들은 『醫方類聚』에서 『醫林撮要』를 거쳐 『東醫寶鑑』에 이어지는 消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醫林撮要』의 주요 참고 서적인 『醫學正傳』과 『玉機微義』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金元四大家와 비교하였고, 당대의 명대 의서들과 비교하여 『醫林撮要 - 三消門』에 消渴에 대한 인식이 의사학적 견지에서 의미있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醫林撮要』의 消渴은 三消門에서 다루고 있다. 『醫林撮要·三消門』은 각각 小條目을 붙이고 있던 않지만, 각각 내용상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다. 病因 및 病機, 三消, 傳變과 危症을 다루고 있는 총론과 診脈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삼소론에 입각하여 治法과 治方을 제시하고 單方을 덧붙이고 있다. 소갈에 도움이 되는 食治의 방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禁忌 사항을 덧붙이고 있다. 이후에는 治方소개 및 治方構成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1 참조)

『의방유취·소갈문』은 제124권부터 제126권에 걸쳐 의론, 처방, 식치, 금기, 침구, 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소갈』에서는 消渴之源, 消渴形證, 脉法, 消渴有三을 통하여 소갈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상중하의 분류와 치료법 및 처방을 제시하여 소갈에 관한 전반적인 논을 모두 이끌고 있다. 食依證, 消渴小便晝, 消渴由坎火衰少, 消渴與腳氣相反, 消渴通治藥은 앞에서 다 하지 못한 소갈과 관련된 증상과 원인 및 처방을 보충하였다. 酒

5)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38-53쪽.

渴, 蟲渴, 強中證에서는 독특한 원인에 의한 소갈을 기술하고 있다.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은 시간에 따라 소갈의 병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禁忌法과 單方을 덧붙였다. (표1 참조)

표1. 편제

『醫方類聚·消渴門』	『醫林撮要·三消門』	『東醫寶鑑·消渴』
醫論 治方 消渴食治 消渴禁忌 消渴針灸 消渴導引	總論(病因 病機 三消 傳變 危症) 診脈法 治法 治方 單方, 食治, 禁忌 治方 構成	消渴之源, 消渴形證, 脈法, 消渴有三 食飢證, 消渴小便晁, 消渴由坎火衰少, 消渴與脚氣相反 消渴通治藥 酒渴, 蟲渴, 強中證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 禁忌法 單方

1. 病因病機

1.1 津液·血不足

『의림촬요』에서는 소갈의 병을 소개하는 첫 시작에서 소갈이 진액부족, 혈부족의 병기로 발생한 질병임을 드러내고 있다. 유사한 문장 및 의론을 제시하여 소갈의 병기를 이해하는 데에 같은 관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의림촬요』에서는

三陽이 結하였다는 것은 消라고 이르른다. 大腸은 津液을 주관하는 곳으로 病이 생기면 消하게 되어 눈이 노래지고 입이 마르게 되니 진액이 부족해진 것이다. 胃는 血을 주관하는데 열이 생기면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배가 잘 고프게 되니 胃中에 숨어있는 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혈이 부족해진 것이다.⁶⁾

이러한 관점은 『동의보감』에 계승된다.

『동의보감』에서는

手陽明大腸은 진액을 주관하는 곳으로 所生病으로 열이 생기면 즉 눈이 노래지고 입이

⁶⁾ 三陽結 謂之消 大腸主津液 病消則目黃口乾 乃津液不足也 胃主血熱 則消穀善飢 胃中伏火 乃血不足也

마르게 되니 진액이 부족해진 것이다. 足陽明胃는 혈을 주관하는 즉 소생병으로 열이 생기면 즉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배가 잘 고프게 되니 혈중에 숨어있는 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혈이 부족해진 것이다.⁷⁾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방유취』 시절까지 소갈의 병기를 화열론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과는 차이를 드러낸다.⁸⁾ 즉 16 세기에 들어오면서 소갈을 이해하는 데 관점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당대 의서의 데이터베이스 역할⁹⁾을 했던 『醫方類聚』¹⁰⁾에서 살펴보면, 소갈에 대한 이론은 『諸病源候論』, 『得效方』, 『聖惠方』, 『直指方』, 『易簡方』 등의 方書에 다양한 의론으로 드러난다. 즉 風, 火, 熱, 燥, 傷寒, 食傷, 產褥, 腎虛, 腎陽虛 등으로 다양하다.¹¹⁾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소갈에 대한 병인병기론을 정립하고 처방을 제시했던 사람은 劉河濶이다. 그의 저서 『三消論』에 드러난다. 유하간은 六氣변화에 의해 燥熱이 생기고 이로 인해 消渴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또 다른 저서인 『宣明論』을 통해서 風熱로 인해 燥 하게 되어 消渴이 생기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¹³⁾. 이어 火熱, 風熱, 燥熱을 제거하는 처방을 중요하게 제시하였으며, 大黃의 쓰임을 강조하였다.¹⁴⁾

劉河濶의 소갈 병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다른 금원시대인 張子和, 朱丹溪의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三消之說當從火斷’의 조문을 내세워 유하간

7) 手陽明大腸 主津液 所生病熱 則目黃口乾 是津液不足也 足陽明胃主血 所生病熱 則消穀善飢 血中伏火 是血不足也

8)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9)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쪽

10) 盧重禮 외, 『原文 醫方類聚』, 麗江出版社 발행, 서울, 1994.

11)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12) 劉完素, 『河間醫集 · 三消論』,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p. 637-639 若燥熱陽實 則地之氣不立 萬物之根索澤 而枝葉枯矣...(중략)...三消渴者 ...(중략)...積久食熱 結於胸中 下焦虛熱 血氣不能制石 熱燥深於胃 故渴而引飲

13) 劉完素, 『河間醫集 · 黃帝素問宣明論方』,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 288 狂陽心火 燥其三焦 腸胃燥澁佛鬱 而水液不能宣行也 則 周身不得潤澤 故度悴黃黑也 而燥熱消渴

14) 劉完素, 『河間醫集 · 黃帝素問宣明論方』,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 289 降雪散 [黃芩 黃丹 漢防己 瓜蒌實 等分], 人蔘白朮湯大[滑石 半斤, 石膏 四兩, 甘草 三兩, 寒水石 人蔘 白朮 當歸 芍藥 大黃 山梔子 荊芥穗 薄荷 桔梗 知母 澤瀉 半兩, 茯苓 連翹 瓜蒌根 乾葛 藿香 青木香 官桂 一兩] 大黃甘草飲子[大黃 一兩半, 甘草 四兩, 大豆 五升] 人蔘散[滑石 寒水石 三兩, 石膏 二兩, 甘草 一兩半, 葛根 黃芩 大黃 薄荷 白茯苓 一兩, 白朮 澤瀉 瓜蒌 桔梗 梔子 連翹 半兩, 人蔘 三錢]

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다.¹⁵⁾ 朱丹溪는 『丹溪心法』에서 消渴은 여러 가지 원인 의해 炎火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병기를 설명하고 있다.¹⁶⁾ 『丹溪心法附餘』¹⁷⁾에서 역시 유하간의 화열론과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학파가 유하간으로부터 소갈병기 파악과 처방에 있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방유취』 내에는 유하간 론을 주요 의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단계와 이동원에 이르러 달라진 점이 나타난다. 주단계는 병기를 설명할 때는 유하간의 론을 차용하였지만,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소갈이 血虛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⁸⁾ 이동원은 병기의 인식에 있어서 아예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다. 『黃帝內經陰陽別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津液不足과 血不足으로 消渴이 발생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금원시대 이전 소갈의 병인과 병기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던 점에서, 금원시대 이후 화열론 중심에서 진액과 혈부족론 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의학정전』, 『萬病回春』, 『古今醫鑑』, 『醫學入門』 에도 계승된다.

『醫林撮要』에서는 병기의 설명에 있어서 유하간의 화열론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주단계가 유하간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血虛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소갈의 병기를 津液과 血不足 중심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醫林撮要』의 주요 인용서적인 『醫學正傳』²⁰⁾과 『玉機微義』²¹⁾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의림촬요』에서 유하간의 火熱 및 燥熱에 관한 병기에 관한 언급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醫學正傳』과 『玉機微義』에서는 火熱 및 燥熱에 의한 소갈 병기를 병행하여 강조하고 있고, 유하간 처방 역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주단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의림촬요』가 의론을 구성할 때 『의학정전』과 『육기미의』의 문장을 많이 인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소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림촬요』에서 유하간론이 배제되고 진액과 혈부족 중심의 의론을 펼친 것은 『동의보감』에 그대

15) 張子和, 『子和醫集·儒門事親』, 金 張從正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p. 112

16) 朱丹溪, 『丹溪醫集·丹溪心法』, 元 朱震亨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p.324 人惟淫慾恣情 酒麵無節 酷氣炙薄糟藏 鹹酸酢醢 甘肥腥膻之屬 復以丹砂玉石濟其私 於是炎火上熏 臟腑生熱 燥熾盛 津液乾焦 ... (중략)...謂之消渴... (중략)...消中... (중략)... 消腎

17) 方廣, 『丹溪心法附餘』, 대성문화사, 서울, 1982.

18) 上同

1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 李東垣 外, 대성문화사, 서울, 1996. 陰陽別論云 二陽結 爲之消 脈要精微論云 瘴盛爲消中 夫二陽者陽明也 手陽明大腸 主津 病消則目黃 口乾 是津液不足也 足陽明胃 主血 熱則消穀善飢 血中伏火 乃血不足也 結者 津液不足 結而不潤 皆燥熱爲病也

20) 虞搏, 『醫學正傳』, 의약사, 1972. 內經曰 二陽結謂之消 又曰 瘴成爲消中 東垣曰 二陽者陽明也 手陽明大腸主津液 若消則目黃口干 乃津液不足也 足陽明胃主血 若熱則消谷善飢 血中伏火 乃血不足也 結者津液不足 結而不潤 皆燥熱爲病也 此因數食甘美而多肥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治當以蘭 除陳氣也 不可服膏粱芳草石藥 其氣慄悍 能助燥熱也 (중략)...人參白術湯, 絳雪散, 人參散, 大黃甘草飲子

21) 劉純, 『劉純醫學全集·玉機微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消渴者 或風熱燥 甚怫郁在表而里 (燥本風熱論) 內經 陰陽別論曰 二陽結謂之消 脈要精微論曰 瘴成爲消中 按東垣曰 二陽者陽明也 手陽明大腸主津 病消則目黃 口干 是津不足也 足陽明胃主血 熱則消谷善飢血中伏火乃血不足也 結者津液不足 結而不潤皆燥熱爲病也 此因數食甘美 而多肥 故其氣上溢轉爲消渴治之 以蘭除陳氣也 不可服膏粱芳草石藥 其氣剽悍能助燥熱也(消渴門) 論三消之疾燥熱勝陰 河間曰 三消之疾 本濕寒之陰氣極衰 燥熱之陽氣太甚

로 계승된다.

그러면, 이렇게 소갈에 관한 증상 및 병기에 관한 인식이 다양한 것에서, 유허간의 화열론, 그리고 주단계와 이동원에 걸쳐 강조된 진액과 혈부족론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테지만, 우선은 임상경험의 축적을 통해 소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또, 소갈이 의미하는 증상의 범주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본 논문에서 소갈의 범주 부분에서 더 고찰 할 것이다.

표2. 소갈 의론의 변천

시대	중심 醫論
隨·唐·宋代	風, 火, 熱, 燥, 傷寒, 食傷, 產褥, 腎虛, 腎陽虛 등
金元代 劉河間, 張從正	火熱, 風熱燥
金元代 李東垣	津液不足, 血不足
元代 朱丹溪, 明代 劉純 虞搏	火熱, 燥熱, 津液不足, 血不足
朝鮮 楊禮壽, 許浚 등	津液 血不足, 血虛

2. 消渴의 분류

『의림촬요』에서는 소갈을 삼소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우선 제시하고 있다.

상소는 혀바닥이 붉게 갈라지고 크게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나 많이 먹지는 않는다. 대변은 평소와 같고 소변은 맑고 잘 나온다.²²⁾

중소는 밥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며 자한하고 대변이 딱딱하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으면서 소변은 붉고 누렇다.²³⁾

하소는 번조를 느끼면서 물을 마시고, 콧바위가 타고 건조해지며 소변에 기름이 낀듯하다. 갈증이 나면서도 소변이 똑똑 떨어지는 모양이다. ²⁴⁾

「동의보감」의 삼소에 대한 설명 역시 『의림촬요』에서 채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2) 舌上赤裂 大渴引飲 多飲水而小食 大便如常 小便清利

23) 善食而瘦 自汗小便數 大便硬 多飲食而小便赤黃

24) 煩渴引飲 耳轉焦乾 小便如膏 渴淋

상소는 혀바닥이 붉게 갈라지고 크게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는 것이다.²⁵⁾

중소는 밥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며 자한하고 대변이 딱딱하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다.²⁶⁾

하소는 번조를 느끼면서 물을 마시고, 콧바위가 타고 건조해지며 소변에 기름이 낀듯하다. 허벅지와 무릎이 가늘고 마르게 된 것이다.²⁷⁾

이와 아울러 삼소론의 처방도 분명히 재정리하였다.

『의림촬요』의 삼소론은 『의방유취』의 여러 가지 삼소론 가운데 『간지방』²⁸⁾에서 채택된 상증하의 삼소론의 전통을 채택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⁹⁾ 『의방유취』 시절의 삼소 분류가 다소 번잡했던 것을 감안하면, 『의림촬요』에 이르러 간단하고 명확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의보감』의 삼소론은 ‘消渴形證’과 ‘消渴有三’ 조문을 통해 병정의 심화과정을 표현하면서 삼소 분류법을 계승했다.

이는 삼소의 구분이 곧 소갈의 종류를 단순히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병의 심화에 따른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다음과 같이 병정의 심화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난다.

消渴은 輕하고, 消中은 심한 것이다. 消腎 또한 甚하니 만약, 強中이면 위험하다.³⁰⁾

삼소의 분류를 통해 여러 가지 용어로 혼재되어 있고 서로 다른 삼소의 구별을 지었던 과거 전통을 정리하여,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에서는 병정의 심화를 의미하는 상증하의 삼소로 명확히 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분명히 나누어 기술하였다.

25)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26)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27) 下消者 煩燥引飲 耳輪焦乾 小便如膏 腿膝枯細

28) 若熱氣上騰, 心虛受之, 火氣散漫而不收斂, 胸中煩燥, 舌赤如血, 唇紅如坏, 渴飲水漿, 小便頻數...屬於上焦, 病在標也...若熱蓄於中, 脾虛受之, 伏陽蒸內, 消穀喜飢, 食飲倍常, 不生肌肉, 好飲冷水, 小便頻數, 色白如泔, 味恬如蜜, 名曰瘠中, 又曰脾瘠, 屬於中焦, 病在水穀之海也...若熱伏於下焦, 腎虛受之, 致精髓枯竭, 引水自救而不能消, 飲水壺斗, 小便反倍, 味甘而氣不臊, 陰強而精自走, 腿膝枯細, 漸漸無力, 名曰瘠腎

29)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醫方類聚』 및 『東醫實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30) 消渴輕也 消中甚焉 消腎又甚焉 若強中則 其斃可立待也

3. 消渴의 범주

『의방유취』 시절에는 소갈이 포함하는 것은 諸渴症³¹⁾과 三消論에 따르는 三消, 기타 폐소, 격소, 소갈이 변화여 된 응저나 창만증 등이었다.³²⁾ 하지만, 조선 중기 『의림촬요』에 이르러서는 소갈의 넓은 범주가 보다 좁아지고, 구체화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의림촬요』에서는 제갈증은 傷寒門, 暑證門, 內傷門, 火熱門, 虛損門, 産後門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러한 맥락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孫一奎 『赤水玄珠全集』³³⁾과 羅天益 『衛生寶鑑』³⁴⁾에서 傷寒에서 비롯되는 갈증인 ‘六經渴’ 消渴의 범주에 언급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소갈 범주에 대한 개념에 諸渴症이 포함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의림촬요』와 『동의보감』 소갈에 대한 범주 설정이 보다 정교했음을 알 수 있다.

『의림촬요』에서 다루고 있는 소갈에서는 諸渴症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르는 증상들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즉, 진액부족과 혈부족에 단계에 이르면 갈증과 그에 수반되는 증상들 만을 소갈에서 다루고 있다.

병기의 설명에 있어서 유하간의 화열론을 배제하였던 것은 화열로 인한 여러 갈증을 소갈을 다루는 데 구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단계나 명대의 의가들이 소갈에 응용하였던 유하간의 처방들은 『의림촬요』에는 火熱관련 조문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갈의 범주를 진액과 혈부족의 단계에 이르면 것부터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의림촬요·삼소문』에서는 따로 항목을 두어 전변증과 불치증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下消에서 심해지면 癰疽, 脹滿등이 생길 수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였고 특히 전변증과 불치증이라는 조목을 따로 두어, 소갈의 범주 안에 전변의 증상과 불치의 증상을 포함시켰다. 다른 의서들이 삼소론의 단순한 구분과 처방 제시에 그치고, 전변증은 다시 다른 조문 즉, 응저나 창만 등에서 다루게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지난 연구에서 밝혔듯이 다른 의서들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전변의 증상과 불치증을 모아 조목을 따로 두어 강조한 것으로 『동의보감·소갈』에서만 다루고 있는 독특한 점으로 지난 연구를 통해 언급하였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 소갈은 증상과 질병의 양상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의림촬요』의 선구적인 의론 전개는 소갈을 ‘증상 + 질병’이 혼재된 개념에서, 명확하게 ‘질병’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이는 『동의보감』으로 계승 발전된다.

31) 火, 暑, 寒, 食, 虛勞, 産褥 등으로 인한 각종 갈증

32)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3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86.

34) 羅天益, 『衛生寶鑑』, 금강출판사, 서울, 발행 1981.

4. 治法과 治方

『의림촬요』에서는 처방제시를 의론과 함께 설명한 부분, 처방을 따로 제시하고 구성을 보여준 부분으로 나뉜다. 의론부분과 함께 중요하게 설명되는 부분은 四物湯 加味法이다. 또, 후대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친 처방은 加減腎氣丸이다. 기타 처방들 제시된 대는 특징적인 면이 있었다.

4.1 四物湯 加味法

『의림촬요』에서 소갈을 세가지로 분류한 것과 더불어 혈허와 진액부족을 치료하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혈허와 진액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속한다. 이는 폐를 기르고 화를 내리며 혈을 만들어내는 것을 위주로 하여 치료해야 한다. 상소에는 生脉散에 天花粉, 藕汁 끓인 것, 生地黄汁, 人乳汁을 가하고,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生葛汁을 더한다. 중소에는 생맥산에 知母, 石膏, 滑石, 寒水石을 가하여 胃火를 내리도록 한다. 하소에는 생맥산에 黃栢, 知母, 五味子, 熟地黄을 가한다.³⁵⁾

처방의 방법은 상중하 삼소의 구별에 따라 혈허와 진액부족을 치료하도록 하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역시 혈부족을 치료하기 위해 사물탕의 상중하 삼소에 따른 가감법을 소개하였다.³⁶⁾ 『의림촬요』와 문장 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다.

四物湯 가미법

上消：人參, 五味子, 麥門冬, 天花粉, 牛乳汁, 生地黄汁, 生藕汁

中消：知母, 石膏, 寒水石, 滑石

³⁵⁾ 多屬血虛不生津液 治宜養肺降火生血爲主 四物湯 減半川芎 上消 合生脉散 加天花粉 煎入藕汁 生地黄汁 人乳汁 飲酒人 生葛汁 中消本方 加知母 石膏 滑石 寒水石 以降胃火 下消 加黃栢 知母 五味子 熟地黄

下消：黃栢，知母，熟地黃，五味子

삼소에 사물탕 가미방을 쓰는 것은 주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方廣에 의해 처음 제시 되긴 했지만, 『단계심법부여』에서 보면 그 위상³⁷⁾ 면에서 유하간의 처방에 비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진 못하였다. 사물탕 가미방을 적극적으로 삼소에 응용한 것은 오히려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림촬요』에서 혈부족으로 인한 소갈병기를 중시하고 실제 임상에서 사물탕에 가미한 처방을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의보감』에 영향을 미쳐 사물탕 가미법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단계심법』에는 滋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있고, 『단계심법부여』에 처방을 제시하였을 뿐인데 조선 중기의 의사들이 임상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유하간 처방에 비해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2 火熱論 治方 배제

삼소에 사물탕 가미방을 쓰는 것 외에 다른 처방들도 제시하고 있다. 『의림촬요』에서는 상소 9개³⁸⁾, 중소 3개³⁹⁾, 하소 4개⁴⁰⁾의 처방을 처방 구성원에 제시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보다 상세한 응용을 위해 상소 8개⁴¹⁾, 중소 8개⁴²⁾, 하소 6개⁴³⁾의 처방을 기록하였다. 이 처방 제시에서 특징적인 점은 『의림촬요』는 유하간의 소갈처방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의보감』에서 의론부분에서 유하간론을 제외시켰다고는 하지만, 처방 제시에서는 상소에 『保命集』⁴⁴⁾ 人蔘石膏湯을 쓰도록 용량을 변화시킨 처방을 제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삼소론의 구성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도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은 명대의 『의학정전』이나 『옥기미의』에서 조차 유완소의 처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脫 유완소론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37) 구성상 제일 먼저 제시된 처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하간의 처방은 앞쪽에 먼저 제시되어 있고, 사물탕의 가미법은 맨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사물탕의 가미법이 소갈 치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38) 當歸潤燥湯, 天花散, 麥門冬飲子, 清心蓮子飲, 黃芪湯, 降心湯, 茯神元, 黃芩湯, 門冬飲子

39) 加味錢氏白朮散, 生津甘露湯, 清胃補陰湯

40) 蠶繭湯, 補腎地黃丸, 雙補元, 加減腎氣丸

41) 白虎加入參湯(人參白虎湯) 加味錢氏白朮散 麥門冬飲子 降心湯 人參石膏湯 清心蓮子飲 和血益氣湯 生津養血湯 黃芩湯

42) 調胃承氣湯 加減三黃丸 蘭香飲子 生津甘露湯 順氣散 人參散 黃連豬肚丸 藕汁膏

43) 六味地黃丸 人參茯苓散 加減八味元 加減腎氣丸 補腎地黃元 鹿茸丸

44) 劉完素, 『河間醫集·素問病機宜保命集』,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人蔘石膏湯[石膏 一兩, 人蔘 半兩, 知母 七錢, 甘草 四錢]

4.3 加減腎氣丸

지난 연구를 통해 『동의보감·소갈』에서는 금원시대부터 주목받지 못한 이론인 양허에 의한 소갈론에 다시 주목하여 중요한 의론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⁴⁵⁾ 즉 진액 및 혈부 축론 외에 ‘소갈이 坎火衰少에서 비롯된다’⁴⁶⁾⁴⁷⁾ 는 의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許叔微 『普濟本事方』에서 등장한 것으로 유하간 이후 비판 받은 이론이나 『동의보감·소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의림촬요·삼소문』에서 加減腎氣丸의 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림촬요』에서 加減腎氣丸은 다음과 같다.

白茯苓 牡丹皮 去心 熟地黃 酒蒸 五味子 澤瀉 鹿角鎊 山藥炒 各二兩

官桂 忌火 沈香 忌火各半兩 (중략)

下弱甚 加 附子一兩

『의림촬요』는 의론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처방 운용의 논리가 이후 『동의보감』의 감화쇠소론에 관한 조목을 따로 두게 되고, 팔미원 운용을 제시하게 된 모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의림촬요』의 이러한 처방 제시는 당대의 『의학정전』(1515년), 『萬病回春』(1589년)⁴⁸⁾, 『古今醫鑑』(1576년)⁴⁹⁾에서 주단계의 처방 구성양식인 六味地黃丸 加五味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許叔微의 『普濟本事方』에는 상기문장의 처방을 八味腎氣圓이라 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熟地黃 半斤

산수유 五兩

45)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46) 消渴由坎火衰少.

47) 金南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韓國醫史學會誌 vol.12, No.2, 1999.

48) 龔廷賢, 『萬病回春』,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9) 龔信, 『古今醫鑑』,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山藥, 택사 四兩

복령, 목단피, 부자, 계심 各三兩

『동의보감』에서 팔미원은 腎門에 나오며 처방은 아래와 같다.

熟地黃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牡丹皮, 白茯苓, 澤瀉 各三兩

肉桂, 附子炮 各一兩

『동의보감』에서 언급되고 있는 坎火衰少論은 다음과 같다.

폐는 오장의 뚜껑이 된다. 만약 아래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훈증해주면 폐는 윤기있게 되지만, 아래 쪽이 차지면 양기가 올라갈 수 없으므로 폐가 건조해지면서 갈증이 생기게 된다. 주역에 ‘乾上坤下는 否卦’가 된다고 하였으니, 양기는 음기가 없으면 내려가지 못하고, 음기는 양기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게 되므로 막히게 되는 것이다. 비유해보면, 솥 가운데에 있는 물을 불로 덥히고 위에다 판을 덮어,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 판을 적시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화력이 없으면 물기가 올라가질 못하여 판은 적셔지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화력은 허리와 신장이 강하고 튼튼하여 腎氣를 따뜻하게 보하는 것이다. 음식물이 화력을 얻으면 쉽게 소화된다. 또한 마르게 되어 소갈병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마땅히 八味腎氣丸(八味元 加 五味子)을 쓴다⁵⁰⁾

위에서 처럼 『동의보감·소갈』에서 처럼 별도의 조문을 두고 중요한 의론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의림촬요·삼소문』에서도 陽衰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 『의림촬요·삼소문』에 등장하는 加減腎氣丸의 응용례를 통해 알 수 있다.⁵¹⁾ 처방 해설 끝

50) 肺爲五藏華蓋 若下有煖氣蒸 則肺潤 若下冷極 則陽不能升 故肺乾而渴 易 乾上坤下 其卦爲否 陽無陰不降 陰無陽不升 故成否也 譬如釜中有水 以火煖之 又以板覆 則煖氣上騰 故板能潤 若無火力 則水氣不能上升 此板終不得潤 火力者 腰腎強盛 常須煖補腎氣 飲食得火力 則潤上而易消 亦免乾渴之患 宜服八味腎氣丸 (卽八味元加五味子也)

에 ‘下弱甚 加附子一兩’을 덧붙여서 陽衰에 의한 消渴에 대해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附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더운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론은 실려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를 통해 『동의보감·소갈』에서 坎火衰少의 관점을 중요 의론으로 다루게 된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의방유취 시절 소갈의 병기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許叔微 『普濟本事方』⁵²⁾에서는 陽衰로 인한 소갈을 언급하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또, 陽衰에 관한 의론을 전개 하진 않았지만, 陽衰의 측면에서 소갈 질환을 다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三因方』⁵³⁾에는 소갈에 八味丸 뿐 아니라, 附子가 포함된 처방을 운용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陽衰로 인한 소갈론과 더운 약을 쓰는 처방들은 대부분 금원시대에 의해 비판받고 극복대상의 이론이 되었다. 특히, 양기가 쇠하였을 때 쓰는 처방 중에 하나인 八味丸의 쓰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음을 지난 연구를 통해 밝혀놓았다.⁵⁴⁾유하간은 전대에 유행하던 더운 약을 쓰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消渴의 치료에서도 같은 이론을 폈고, 張子和는 『유문사찬·三消之說當從火斷』조를 통해 “최근 의사들이 소갈을 腎虛로 단정 짓고 腎水가 火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나 그 처방은 그릇되게 하고 있으니 어찌하리오! 八味로 소갈을 치료하는 것은 腎水를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火를 돕는 것이다.”⁵⁵⁾라고 하면서 神芎丸⁵⁶⁾이나 人參白朮湯, 消痞丸, 大人參散, 碧玉鷄蘇散, 桂苓甘露散, 白虎湯, 生藕節汁, 淡竹瀝, 生地黄汁 등을 쓰라고 하였다. 유하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장자화나 주단계 역시 소갈의 陽衰에 의한 의론을 배제시켰다. 이동원의 역시 陽衰에 관한 의론을 따로 두진 않았다. 이렇게 陽衰의 측면은 명대 『의학정전』, 『옥기미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明代에도 금원시대와 그 제자들이 소갈에 더운 약 쓰는 것을 경계한 것을 넘어서 의론과 처방을 제시한 다른 의가들을 찾을 수 있다. 趙獻可 『醫貫』(1617년)⁵⁷⁾에서 八味丸, 理中湯, 附子和 肉桂등이 들어간 처방을 응용한 예를 살펴볼 수 있다. 張介賓 『景岳全書』(1624년)⁵⁸⁾에 이르러서는 소갈의 陽衰에서 병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론으로 정립하

51) [加減腎氣丸] 白茯苓 牡丹皮去心 熟地黃酒蒸 五味子 澤瀉 鹿角鎊 山藥炒 各二兩 官桂忌火 沈香忌火各半兩

52) 許叔微, 『證類普濟本事方』, 中國醫學大系, 商務印書館, 발행 1990.

53)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三消治法』, 中醫方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8.

54)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55) 後人斷消渴爲腎虛 水不勝火則是也 其藥則非也 何哉 以八味丸治渴 水未能生而火反助也

56) 今代劉河間自制神芎丸 以黃芩味苦心入心 牽牛大黃驅火氣而下 以滑石引入腎經 此方以牽牛滑石爲君 以大黃黃芩爲臣 以芎連薄荷爲使 將商入坎 真得黃庭之祕者也

57) 趙獻可 『醫貫·消渴論』 古今名醫臨證金鑒 消渴卷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惑曰 人有服地黃湯而渴仍不止者 何也 (중략) 如上消 中消 可以前丸緩而治之 若下消已極 大渴大燥 順加減八味丸...(중략) 下消無水 用六味地黃丸以滋少陰之腎水矣 又加附子 肉桂者何 蓋因命門火衰 不能蒸腐水穀 水穀之氣不能熏蒸..(후략)

58) 張介賓, 『景岳全書』, 정담, 1999.

고 있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간행 연대를 비교해볼 때 금원시대의 치법의 한계를 극복한 趙獻可나 張介賓 등의 의가들 보다 『의림촬요』(1589 -1592년)와 『동의보감』(1613년)이 조금 앞선다. 『동의보감』이 소갈에서 陽衰를 중시하여 의론과 처방을 제시한 것은 소갈의 병기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선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온열약을 소갈에 사용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溫熱藥을 배척했던 유하간의 의론이나, 자음위주의 처방만 구사했던 주단계의 의론을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임상경험의 축적과 수준이 상당했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명대 은보학과의 조현가의 『醫貫』(1617년)이나 장개빈의 『景岳全書』(1624년)에 의해 의론과 처방이 제시된 시점보다 앞서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의사들이 보다 선진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갈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 갈증이 아니라, 병정의 악화로 나타나는 합병증까지도 내포하는 의미를 지닌다. 감화쇠소 혹은 陽衰로 표현되는 腎陽不足이 각종 전변증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갈 조문에서 다루는 증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3. 陽衰로 인한 소갈에 대한 입장 변화

醫書 혹은 醫家	내용
普濟本事方, 三因方	坎火衰少論, 附子 응용
劉河澗, 張從正, 朱丹溪	陽衰에 의한 소갈론 부정, 附子 및 肉桂의 사용에 제한을 둠
醫林撮要, 東醫寶鑑	附子사용례 제시, 坎火衰少論 중시, 八味元 加味方 을 통한 처방 제시
趙獻可, 張介賓	부자 및 육계의 사용례 제시, 양식으로 인한 소갈 의론 정립

결론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의 소갈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59) 若下焦淋瀝而全無火者 乃氣不攝精而然 但宜壯水養氣 以左歸飲・大補元煎之類主之 若火衰不能化氣 氣虛不能化液者 猶當以右歸飲・右歸丸・八味地黃丸之類主之

첫째, 『의림촬요』에서는 당대 지배적 의론이었던, 화열론을 중심으로 소갈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병이 보다 깊어진 상태인 진액과 혈부족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여 병기 인식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의보감』은 이를 바탕으로 진액과 혈부족론에 의한 소갈에서 나아가 坎火衰少에 의해 보다 악화된 소갈과 전변증 및 불치증까지도 소갈의 논의에 포함시켜 소갈 질환에 관해 의론과 치법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이전 시대 및 동시대의 다른 의가들이 소갈에 대해 ‘증상+질병’으로 여러 가지 갈증의 증상군의 혼재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의림촬요』에서는 소갈을 단순 갈증이 아닌, 특정 병기와 병정, 합병증과 예후를 지닌 질병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셋째, 『의림촬요』에서는 화열론 중심의 처방에서 벗어나 사물탕 가미법을 사용하여 滋陰의 처방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자음치법에만 매몰되지 않고 加減腎氣丸의 제시를 통해 자음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후대에 이를 바탕으로 坎火衰少에 입각한 처방을 사용하게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의방유취』 시절의 소갈 인식에서 나아가 『의림촬요』에 이르러 질병으로의 인식과 처방상의 변화에 있어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의방유취』에 소갈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론이 심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또, 소갈 환자가 많아서 임상경험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거나, 소갈에 대한 질병의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갈에 대해 여러 갈증들의 증상군에서 특정 병정을 지닌 질병으로의 인식 전환이 있었고, 그 병정의 유사성 때문에 현대에 와서 당뇨병과 소갈을 등치에 놓고 처방을 논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조선 중기의 소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류>

姜錫峯 외 3인, 消渴의 傳變症과 糖尿病의 慢性合併症에 대한 比較考察, 제2회 동의·경산 한의 학학술대회 자료집, 1998.

金南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韓國醫史學會誌 vol.12, No.2, 1999.

김병우, 消渴症 處方인 天花散, 八仙長壽丸 및 玉泉丸이 생쥐 血糖量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 저자, 판본, 구성, 인용문헌 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張泰洙 외 2인, 症狀을 中心으로 본 消渴과 糖尿病의 關係, 韓方內科學會誌 3월호 2권 1호, 1985.

조선영,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원전류>

龔廷賢, 『萬病回春』,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발행 1999.

龔信, 『古今醫鑑』,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발행 1999.

羅天益, 『衛生寶鑑』, 金강출판사, 서울, 발행 1981.

盧重禮 외, (原文)醫方類聚, 여강출판사, 발행 1994.

方廣, 『丹溪心法附餘』, 대성문화사, 서울, 발행 198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86.

楊禮壽,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발행 199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 蘭室秘藏』, 李東垣 外, 대성문화사, 서울, 발행 1996.

虞搏, 『醫學正傳』, 의약사, 발행 1972.

劉純, 『劉純醫學全集 · 玉機微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86.

劉完素, 『河間醫集 · 三消論』,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98.

劉完素, 『河間醫集 · 黃帝素問宣明論方』,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98.

劉完素, 『河間醫集 · 素問玄機宜保命集』, 金 劉守眞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98.

張子和, 『子和醫集 · 儒門事親』, 金 張從正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94.

朱丹溪, 『丹溪醫集 · 丹溪心法』, 元 朱震亨 撰,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발행 1993.

趙獻可 『醫貫 · 消渴論』, 古今名醫臨證金鑒 消渴卷,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발행 1999.

張介賓, 『景岳全書』, 정담, 발행 1999.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 三消治法』, 中醫方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발행 1998.

許叔微, 『證類普濟本事方』, 中國醫學大系, 商務印書館, 발행 1990.

許浚, (原本)東醫寶鑑, 남산당, 발행 197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발행 1985.

<사전류>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기타>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도서출판 들녘, 서울, 1999.

맹웅재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맹옹재 외 9인 역, 陳大舜외 2인 著.各家學說 中國篇, 대성의학사, 2001.

의사들의 생각 - 그 역사적 흐름, Lester S. King, 고려의학 발행, 1994.

국민일보, 2006. 11. 10